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① 06. ⑤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②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③ 26. ⑤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32. ④ 33. ⑤ 34. ② 35. ③ 36. ① 37. ④ 38. ② 39. ③ 40. ③  
 41. ① 42. ④ 43. ① 44. ⑤ 45. ②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강연자가 ‘부딪친 적 있나요?’라고 물은 후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죠?’라고 물은 후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강연자가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는 모습과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강연자가 청중과 상호 작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의 주된 내용은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이유와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지는 않다. ③ 강연자는 자외선에 대한 청중들의 배경지식을 물어보고 난 뒤 ‘다들 잘 알고 있군요.’라고 하고 있다. 배경지식을 환기 하면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을 마무리하는 5문단에서 강연자는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을 뿐, 청중에게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하고 있지 않다.

2.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학생이 제기한 의문인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는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제기한 의문이 아니다. 학생의 의문은 강연에서 야생 조류의 개념 정의나 그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라는 생각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학생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라는 생각은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학생이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

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학생이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영역까지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강연자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2>는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②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색 인식 영역과 관련된 ㉠이 아니라 전방 인지 능력과 관련된 ㉠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자료 1>이 아니라 <자료 2>이다. ④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은 전방 인지 능력과 관련되므로 적절한 자료는 <자료 2>가 아니라 <자료 1>이다.

## [4~7] 화법, 작문

### 4. 토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학생 1'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2'의 제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지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학생 2'가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리, □□길에 대한 언급은 맛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가 맛나거리에 대해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말하자, '학생 3'은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학생 3'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학생 2'는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하면서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라는 과제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토의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의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라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서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에서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에서 찾을 수 없다. ㉢ ㉠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사용한 것이지만 ㉠은 인상적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은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제안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B]에서 ‘학생 3’이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C]를 보면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난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산할머니 제당과 문화제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B]에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C]를 보면 제당에서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제당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B]에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C]를 보면 은행나무와 관련된 산할머니의 일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B]에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은 [C]에서 찾을 수 없다. ④ [B]와 [C] 모두 바람맞이 언덕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주는 공간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는 바람맞이 언덕과 무관하다.

##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학생 3’의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자는 의견과 ‘학생 2’의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자는 의견에서 찾을 수 있다.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 ‘반딧불’,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라는 문구는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두운 여름밤’과 ‘밝은 반딧불’의 대조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학생 2’의 의견도 반

영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랑시의 예술 분야의 특색을 담고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②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사랑시의 전통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8~10] 작문

###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은 글의 초고 어느 부분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글의 초고에 반영된 생각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 ‘실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사극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9.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의 가치와 ‘사극’의 가치를 동등하게 언급하며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다고 서술되어 있다.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은 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게 서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사극’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은 ㉡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사극의 본질이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사극이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 두 요소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상력’의 균형을 언급하고 있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와 허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② 허구를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④ 사실로서의 역사가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허구를 통해 공감을 유도한다는 [A]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보기>에 없으며, 허구와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과도 맞지 않다. ⑤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 역사적 사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극을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 [11~15] 문법

#### [11-12] 명사/부사 파생 접미사 및 명사형 전성 어미의 통시적 비교

**지문해설** :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아 발생하는 ‘단어의 형태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품사 구별을 위해 해당 접미사 혹은 전성 어미가 결합한 단어들의 문법적 특질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세 국어에서의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의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특히 현대 국어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주제]** 명사/부사 파생 접미사 및 명사형 전성 어미의 통시적 비교

## 11.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4문단의 사례 및 설명, 2문단의 명사와 부사의 특성에 대한 기술 내용을 고려할 때 ‘노피’는 ‘높-’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노피’는 ‘높-’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부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름’은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여름’은 ‘열-’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② ‘거름’은 ‘걸-’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걸-’에 명사형 전

성 어미 ‘-음’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③ 3문단의 설명을 통해,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용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는 ‘-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는 ‘-음’이 각각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의 ‘노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와 결합하는 ‘ㄴ’은 양성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 ‘높-’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함을 파악할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결합은 모음조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곧다’, ‘곧다’가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 12. 파생 접미사와 전성 어미 이해

**정답해설 :** ④ ‘도움’과 ‘믿음’ 모두 해당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 ‘믿음’은 부사어 ‘온전히’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움’과 ‘믿음’은 둘 다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많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얹’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격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슬픔’은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②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멸치’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볶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몹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쁨’은 형용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③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큰’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묶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춤’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⑤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울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밝게’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웃음’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 13.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정답해설 :** ‘도매가격(都賣價格)’과 ‘도맷값(都賣-)’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한자어’이고 후자는 ‘한자어+고유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세방(傳貰房)’과 ‘아랫방(--房)’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한자어’이고 후자는 ‘고유어+한자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③ ‘버섯국’과 ‘조갯국’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둘 다 ‘고유어+고유어’이다(㉡). 그런데 전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후자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④ ‘인사말(人事-)’과 ‘존댓말(尊待-)’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한자어+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

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존댓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에 비해 ‘인사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 ‘나무껍질’과 ‘나뭇가지’는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고유어+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뀔에 비해 ‘나무껍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 14.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의 비표준 발음은 ‘굵는 → 글는 → [글른]’의 과정을, ㉡의 표준 발음은 ‘짹네 → 짹네 → [짹레]’의 과정을 거치므로 ‘굵는 → 글는’, ‘짹네 → 짹네’의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글는 → [글른]’, ‘짹네 → [짹레]’의 유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은 ‘굵는 → 극는 → [궁는]’의 과정을, ㉣의 비표준 발음은 ‘짹네 → 짹네 → [짹네]’의 과정을 거치므로 ‘굵는 → 극는’, ‘짹네 → 짹네’의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극는 → [궁는]’, ‘짹네 → [짹네]’의 비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 ㉣의 표준 발음은 각각 ‘끓기고[끈키고]’, ‘뚫지[뚫치]’이며, 이때 예사소리 ‘ㄱ’, ‘ㄷ’, ‘ㄴ’, ‘ㄷ’이 ‘ㅎ’과 만날 때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난다. 정답 ①

#### 15. 시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의 예문은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 예로 보기 어렵다.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각인 ‘쓰다’가 서술어인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음 주에 약속이 있다는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미래의 일이지만 수첩을 보고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놀랍다’가 서술어인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밉다’가 서술어인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④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기쁘다’가 서술어인 의문문이기기는 하지만, 수사 의문문이므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일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16-21] 인문,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의학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을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에 영향을 받아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한편 최한기는 흠손의 『전체신론』에 영향을 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몸기계의 개념, 즉 인체가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라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최한기는 흠손과 달리 인체의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하였는데, 신기가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한기의 인체론에서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감각을 통합할 수 있고,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한기의 인체론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을 접합하여 인체의 작동을 설명한 것으로 서양 의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7세기 초부터 서학 서적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서양 의학이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다는 서양 의학의 설명을 수용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최한기는 흠손의 저서를 통해 인체를 몸기계로 파악한 자신의 견해를 더욱 분명히 하되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에 의해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 글은 서양 의학이 수용되면서 일어난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의 변화를 이익과 최한기의 주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파하기]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③ 인체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이 담긴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이익은 지각 활동을 심장이 주관한다고 본 반면 최한기는 신기가 주관한다고 보았으므로 두 학자의 견해가 서로 충돌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양 의학 지식이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미친 영향이 제시되고 있을 뿐 동양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전체신론』은 인체의 운동을 기계적 인과 관계로 보고 있지만 아담 샬의 『주제군징』에는

---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한기는 흙슨의 『전체신론』을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아담 샬은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고 설명한 데 반해 이익은 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내세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흙슨은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뇌주지각설을 내세웠다. 이익 역시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흙슨과 이익은 모두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주제군징』에는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이 실려 있었으며, 『전체신론』은 인체의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상정하였으므로 두 책에는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이유, 즉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가 서양 의학이 영향을 미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②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이 내용 면에서 부족했다는 설명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당시 서양 의학은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것과 같은 천문 지식처럼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1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ㄴ. 6단락을 통해 최한기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하고,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에 쏠린 신기는 청각을 통해, 눈에 쏠린 신기는 시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최한기의 견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ㄷ. 6단락을 통해 최한기는 신기가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기가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한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심장이 군주가 되고, 인간의 지각이 심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견해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로 이익의 견해에 부합한다. 최한기는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신기에 의해 인간의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ㄴ. 최한기가 신기의 종류를 대소로 구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최한기는 신기가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구분되어 있다는 설명은 최한기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 20. 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최한기는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을 뿐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신기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즉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인체 기관인 두뇌의 작용이 아닌 신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본 것이다. 반면 데카르트는 정신이 사유라는 특징을 가지며, 두뇌에 갇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데카르트는 정신이 물질, 곧 신체와 독립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최한기는 신기가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몸을 구성하면서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신기와 신체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데카르트는 정신을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물질과 구분하여 정신이 물질의 하나인 두뇌에 갇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신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최한기 역시 신기는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기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데카르트의 주장이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최한기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내용을 종합하고 확장하는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신체(감각 기관)와 사고(사유)가 영향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한기는 데카르트가 받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데카르트는 물질, 즉 신체의 운동을 기계적 운동으로 보았는데,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맹신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를 뜻한다. ‘가리다’는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를 뜻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입되다’는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오게 되다.’를 뜻하므로 ‘들어오기’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를 뜻하므로 ‘드러내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전파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를 뜻하므로 ‘퍼뜨리기’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수록되다’는 ‘책이나 잡지에 실리다.’를 뜻하므로 ‘실린’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22~26] 독서

#### [22-26] 사회, ‘사법(私法)의 계약과 그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법(私法)에서의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단속 법규’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벌금과 같은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 내용은 유효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의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이미 계약을 통해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의 계약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주제]** 사법(私法)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국가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임의 법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였다. ② ‘임의 법규’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

을 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단속 법규'는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6문단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인정하지 않는 '강행 법규'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⑤ 4, 5문단에서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ㄱ. 2문단을 통해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 법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게 된다. '임의 법규'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므로,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ㄷ.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임의 법규'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임의 법규'보다 우선 적용되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져야 하며,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져야 하며, 방충망 수선에 대한 것은 '임의 법규'에 해당하여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건물주가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은 '단속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 ㉡은 '강행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과 ㉡의 계약에서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계약 자체가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

반환하는 것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만 해당한다. ㉣  
㉦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 ㉠ 모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법의 영역에 해  
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2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대법원 판례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  
난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다. 이는 벌금만 부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법규'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행 법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  
긋나게 계약을 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농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 5문단에 따르면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기>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 이  
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이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  
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의 의미로, ㉤가 문맥상 같은 의미로 쓰인 사  
례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의미이다. ㉡ '신세나 은혜를  
입다.'의 의미이다. ㉢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의 의미이다. ㉣ '물건을 짊어  
서 등에 엮다.'의 의미이다.

[27-31] 현대시 - (가) 박봉우, '휴전선' / (나) 배한봉, '우포늪 왁새' / 현대 수필 - (다) 김기림, '주을온천행'

**지문해설** : (가)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나타내는 '휴전선'을 소재로 휴전으로 미봉책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남과 북의 화합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이 시는 '꽃'을 통해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화산',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겨우살이' 등을 통해 전쟁을 나타내는 등,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민족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미상관적 구성,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 대한 반복적 제시, 설의적 표현의 반복 사용 등으로 역사적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남북 간의 화합으로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민족 분단의 비극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

(나)는 우포늪에서 살아가는 왁새의 울음소리를 어느 소리꾼의 소리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왁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생에 득음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소리꾼을 떠올린다. 이름 없이 살았으나 평생 진정한 소리를 추구했던 소리꾼을 떠올리며, 화자는 상상 속에서 날아가는 우포늪의 왁새와 소리꾼 영혼의 심연을 연결 짓고 있다. 이 작품은 진정한 소리를 찾는 예술의 세계를 자연의 생명력과 어울려 형상화함으로써 그 조화로운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우포늪에서 구현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이 가진 생명력의 가치

(다)는 오심암 혹은 세심암이라 불리는 바위를 보고 느끼거나 깨달았던 점을 서술하고 있다. 글쓴이는 단풍과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어우러진 오심암의 경치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또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자연의 경관을 보며 세속의 찌든 몸과 마음을 지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오심암에서 잠시나마 속세의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속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친구들과 다시 오심암을 찾을 날을 기약하며 그곳을 떠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자연물을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오심암의 경관에 대한 예찬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반성

## 27.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소리꾼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연결 지어 그의 삶과 우포늪이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는 바위로 대표되는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 공간과 세속적 삶에 물든 글쓴이를 연결 지어

---

바위처럼 살고 싶은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모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화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가)에서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 예견하고 있지도 않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생명력,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한 자연과 달리 교만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 2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위기감이 감도는 휴전선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비극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 것은 아니다. (나)는 화자가 떠올린 한 소리꾼의 삶과 우포늪의 모습이 연관되어 형상화되었을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 쓰는가.’, ‘~ 하는가.’ 등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한 대목 절창’을 ‘폭포물줄기로 내리’친다고 했는데, 이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리꾼의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는 ‘산과 산이 ~ 쓰는가.’라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한 소리꾼의 삶을 통해 우포늪에서 창조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우리 민족이 겪는 분단의 아픔과 공포를 ‘꽃’, ‘화산’, ‘바람’이라는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소리꾼의 예술에 대한 염원을 ‘우포늪 왁새’라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왕래할 수 없도록 땅을 나눈 휴전선과 달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끝끝내 하나인’ 세계를 의미한다. 또 (다)에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자연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의미하고, (다)의 ‘검은 절경’은 붉게 누렇게 물든 단풍 빛과 조화를 이루는 오심암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 즉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의미하고, (다)의 ‘찬기’는 글쓴이에게 자신이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발발할 수도 있는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상황을 뜻하고, (다)의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한다. ⑤ (가)의 '요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꽃'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다)의 '바위'는 세속적 삶을 잠시나마 망각하게 하는 소중한 존재를 의미한다.

###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E]에서 화자는 하늘을 선회하는 악새를 바라보며,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끝낸 소리꾼과 이 악새를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우포늪의 악새로부터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면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그려 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화자는 악새 울음소리가 퍼지는 눈부신 우포늪의 모습을 보며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한 소리꾼을 연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소리꾼의 삶의 비애를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C]에서는 소리꾼이 평생 찾아 헤맸던 절창이 늪 뒷산 솔바람에 있었음을 발견한 화자의 정서가 영탄적 어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악새들이 '동편제'를 넘어가는 상상의 장면을 '소목 장재 토평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3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에서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순결한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지, 즉 세속의 때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 글에서 '티끌'은 세속의 더러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연이 '티끌'처럼 작다고 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오심암 주변의 가을 풍경을 붉고 누른 단풍, 검은 바위, 푸른 하늘빛, 흰 구름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자연을 '예술의 극치'라며 예찬하는 반면, '사람'의 예술을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오심암'이 인간과 달리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으며, 인간과 달리 먼지 하나 없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⑤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오심암'을 바라보며 먼지 낀 의복을 입은 자신을 굽어보고, 더러운 '몸뚱어리'와 '마음'을 지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32-34] 고전 시가 - (가)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조위, '만분가'

**지문해설** : (가)는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읊은 전체 3연의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생활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구슬'과 '끈'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다. 3연에서는 임을 신고 떠나는 뱃사공을 원망하며 이별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임의 변심을 우려하는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시의 화자는 고전 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이고 인종의 미덕을 간직한 여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나)는 조선 연산군 때 사회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귀양을 가게 된 조위가 비분강개의 심정을 담아 지은 유배가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다. 화자를 옥황상제와 이별하고 하계로 내려온 선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충신연주지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이 버려지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정서가 두드러지며, 임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배 문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제시된 부분은 임을 잃은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 유배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연군의 정

3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좃니노이다'는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임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임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빋취어든'은 '비치거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자가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되어 임의 옷에 가닿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셔울'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만 (나)의 '건덕궁'은 임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② (가)의 '질삼뵈'는 화자에게 중요하지만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나)의 '빈 낙대'는 사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재로, '질삼뵈'와 '빈 낙대'를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이 아닌 화자의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⑤ (가)의 '그츠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신의(信義)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반기실가'는 '반가워 하십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을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을 돌 불근 밤’은 임과 헤어져 있어 슬픈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고, ‘월중’은 임의 옷에 비친 그림자라도 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이다. 이들은 모두 이별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으로,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산’에 거쳐하며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오르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② ‘만장송’과 ‘매화’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곳곳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님의 귀에 들리’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는 이별로 인한 ‘흔’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흔’의 정서를 형상화한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 34. 작품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A]와 [B]의 ‘바위’는 모두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과 ‘붉은 마음’이 ‘바위’로 형상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와 [B]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대상인 반면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신’을 통해, [B]에서는 ‘붉은 마음’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A]와 [B]에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두 부분은 각각 고려가요와 한시의 형식으로 구현된 작품이므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A]에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라는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반면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35-38] 과학, 'LFIA 키트의 원리와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 중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검사용 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FIA 키트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된다. 각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며, 목표 성분에 따라 다른 방식의 키트가 이용된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키트의 양성 또는 음성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해야 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고,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현실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은 키트가 드물기 때문에 검사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주제] LFIA 키트의 원리와 검사 결과의 이해

3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LFIA 키트에서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아도 표준선이 발색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의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므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이며, 2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LFIA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목표 성분은 항원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고,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각적으로 시료의 목표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어도 키트가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는 위양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직접 방식의 경우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36.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하지만 경쟁 방

식(㉔)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자체이다.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 복합체의 목표 성분과 경쟁하게 되며,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항체와 결합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결합 패드의 검사선은 표준선보다 시료 패드에 더 가까우므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는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을 통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를 이용하여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표지 물질이 아니라 복합체의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과 관련이 있다.

### 3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함에도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위음성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시료에 대해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진음성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 3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살모넬라균은 키트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이므로 항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직접 방식의 LFIA 키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키트의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따라서 ㉔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에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이지 표지 물질에 항원인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므로 ㉔의 개발에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 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LFIA 키트가 개발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는 데에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⑤ <보기>에서 ㉔가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낮다고 하였으므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가 위양성일 수 있다.

[39-42] 고전 소설 - 작가 미상, '옹고집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소리계 소설로, 욕심 많은 주인공이 자신과 닮은 가짜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뒤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괘시하던 '참옹고집'은 도승이 보낸 '짚옹고집'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옹고집'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가져야 할 책무임을 깨닫게 된다. 진짜와 가짜가 송사를 벌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도술을 통해 핵심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기적(傳奇的) 성격도 엿보인다.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개과천선

39.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짚옹고집'은 '참옹고집'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며 '참옹고집'이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건넌으로써 '참옹고집'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서술자는 '참옹고집'의 입장에서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중에 보인 행동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이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해 송사를 벌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② [A]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반응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짚옹고집'이 승소하는 송사의 결과와 관련한 행인들 사이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은 서로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고 있다. ⑤ [A]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모나 외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4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참옹고집'이 집 근처에 왔음을 '짚옹고집'이 능히 알아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후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옹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데려올 것을 사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을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마누라'는 송사에서 이긴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믿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② ㉢에서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④ ㉣에서 '참옹고집'이 마을 뒷산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참옹고집'은 '갈 마음 전혀 없다.'는 말로 함께 가자는 사환들의 요청을 거절하

고 있다.

####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참옹고집’이 아니라 ‘짚옹고집’이 한 말이다. 또한 ‘참옹고집’이 스스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잘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는 말을 통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참옹고집’이 평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며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참옹고집’의 재산으로 ‘짚옹고집’이 선행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참옹고집’과 같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짚옹고집’이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에게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는 모습에서 ‘참옹고집’이 쌓아 둔 재물이 많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전걸식’은 ‘참옹고집’이 겪은 고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참옹고집’의 고달픈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4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B]와 <보기>에서 ‘참옹고집’으로 하여금 개과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이 먼저 ‘도사’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으므로, 개과천선을 요청하는 발화가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에는 ‘나의 어진 용심’이, <보기>에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상황이 언급되었다. [B]의 ‘어진 용심’은 용서하는 ‘짚옹고집’이 지닌 것이고, <보기>의 ‘정상’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참옹고집’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다. ② [B]의 ‘짚옹고집’은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로서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됨을 밝히고 있고, <보기>의 도사는 ‘참옹고집’ 가족의 가여운 상황을 고려하여 ‘참옹고집’을 용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B]와 <보기>에는 각각 ‘참옹고집’이 ‘부모 박대’하고,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하는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⑤ [B]의 ‘짚옹고집’이 ‘허수아비 찰벼 짚뭉음’으로 변하는 것이나 <보기>의 도승이 ‘홀연 간데없’어지는 것은 [B]와 <보기> 모두 도술과 같은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43-45] 현대 소설 - 양귀자, '한계령'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작가가 1980년대 부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는 옛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25년 만에 연락하여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는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은자'가 일하고 있다는 새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한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와 동시대를 살았던 소시민들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연민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주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 간직하고 싶은 추억의 소중함

4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이 글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은자'의 전화를 받은 '나'가 '은자'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끌어낸 서민들의 애환에 대한 사색을, 그리고 '은자'로부터 연상된 고향과 '큰오빠'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이 글은 '은자'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과, '은자'로부터 연상된 고향과 '큰오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은 이야기 내부의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과거의 기억들과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외부에 서술자가 위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은 '나'의 시각에서 '은자'와 '큰오빠'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 모양이었다.', '~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글에는 서술자가 '은자'의 삶에 대해 추측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은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은자'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자'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

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라고 묻는 것에서 ‘은자’는 스스로가 작가인 ‘나’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은자’가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가 자신이 작가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전화를 통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은자’의 전화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은자’의 전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다. ③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전화 속 요청에 대해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다. 따라서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를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은자’는 ‘나’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을 체면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편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지난한 삶의 여정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녀를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굳건한 쇠문’을 몸으로 밀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지 그것을 ‘탐구하고 사색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리막길을 마주’하는 ‘그들’과 그 길을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대립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지닌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을 찾으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쓸쓸함을 느끼는 ‘나’의 태도에서 고향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④ 변해 버린 현재의 ‘큰오빠’와 어린 시절의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대립적인 모습이 ‘나’의 생각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난다는 답지 진술은 적절하다. ⑤ 옛 기억을 지키고 싶어 ‘은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나’와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대립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